

한국禪 무엇이 문제인가

불교문화연구 세미나 개최

간화선에 대한 문제 제기과 비판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가 최근 <참여 불교> 5·6월호에서 '하화중생' 없는 한국선(禪)을 전면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각 스님(동국대 교수·사진)이 현대 한국 간화선의 수행 풍토에 대해 비

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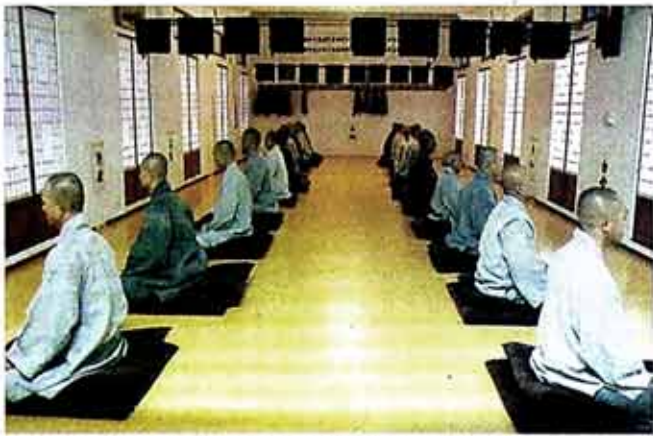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5월 30일 '한국선(禪),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현각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현대 한국의 선 수행에 대해 "처음부터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도 어렵다고 토로하는 화두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선 수행에 대한 체계성을 먼저 세워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이 있어 접경하고 바로잡아가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그냥 화두를 들라고 말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어 현각 스님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그 본래의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 막연하게 깨치고 나면 무슨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라도 얻은 것인 양 신비스럽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 불교의 풍토에 대해서도 현각 스님은 "출가를 무슨 특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하루 속히 반성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치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안거를 몇 월 지냈는가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말해버리는 풍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으로 현각 스님은 학문적 사색을 무시하는 전통을 들었다. 송대 간화선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때를 보더라도 경전이 전혀 무시되지 않았는데, 불립문자에 대한 오해에서 이 같은 전통이 생겨난 것이라는

화두보다 체계성 확립부터



가 하는 일종의 '간화선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가세한다. 현대 한국선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학

출가를 특권으로 여기는 풍토 반성해야
출·재가자 막론 '지도 방식 부재' 문제

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현각 스님의 주장은 전자의 맥을 잇는다.

"한국 간화선의 문제"라는 예민한 주제를 발표한 현각 스님은 출가자나 재가자를 막론하고 출도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지도 방식의 부재'를 우선 지적했다. 화두 수행은 마음의 변화 하나 하나에 대해 곁에서 지도해 주는 스

설명이다.

현각 스님은 "무조건 깨달음은 언설 불급이라 하여 기피하는 것은 기실 깨달음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며 "석가모니가 언설을 통해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듯이 실로 알았으면 그것을 언설이든 몸짓이든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학술담당=권현진 기자 jiny@buddhapa.com

초기 신라 화엄사상자료 발견

진승스님 화엄학주석서 '공목장기' 일부내용 확인



한 <공목장기>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공목장기>는 화엄학의 주요 문헌인 <공목장>에 대한 주석서로 일본 불교 문헌에 그 목록만 전해져 내려 오던 것이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소장 학자 지원을 위해 5월 31일 마련한 2002년 춘계 천태불교 학술발표회에서 진승의 <공목장기> 일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최연식(서울대 강사·사진)은 "목록만 전해는 진승의 <공목장기>의 내용을 극히 일부 확인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씨는 새로운 문헌 <신라기>와 <청구기>가 동일한 책으로 <공목장>에 대한 주석서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전까지 <

신라기>는 원효의 <화엄경소>, <청구기>는 태현의 <화엄경교과기>로 추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 씨는 <성불묘의>에서는 최초 인용이후 이 두 책을 구분하지 않고 '기(記)'라고만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성불묘의>나 <심현사기> 모두 <공목장>의 구절을 제시한 후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신라기>나 <청구기>의 문장들도 대부분 <공목장>의 해당 구절에 나오는 용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이어서 이 책이 <공목장>에 대한 주석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 씨는 "공목장기"는 다른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법경론>의 인용문과 <기신론기> 3권의 저자 해경의 발언이 인용되고 있는 등 초기 신라 화엄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고 밝혔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올해 처음 개최한 춘계 학술발표회에서는 천태학 본과와 불교학 본과로 나눠 모두 16명의 소장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영문불교서적 번역 초보수준

불교와 문화誌, 용어 통일 안되고 뜻도 제대로 맞물려

1974년 미국에서 출판된 <선(禪)을 찾는 늑대>(로버트 피시그 지음, 고려원미디어, 1991)는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1회에 끝나고 말았다. 잘못된 번역이 거의 매혹마다 있어 작품 전체의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영문권 불교 서적의 한국어 번역이 아직 초보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격월간 <불교와 문화>(대한불교진흥원) 5월호는 '불서 번역의 오역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뤘다. '영문권 불서의 한국어 번역과 오역의 문제'를 기고한 진우기(불교전문번역가)에 따르면, 우선 용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팔정도 가운데 '정명'을 뜻하는 'mindfulness'가 대표적. '깨어있는 마음' '마음집중' '마음챙김' '바른 관찰' '각성' '자각' 등 제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바른 기억' '바른 결심' '바른 기억' 등 용어사전이나 번역자마다 정의가 다르긴 마찬가지다. 신스크리터어나 팔리어의 경우 표기도 통일되어야 한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서 'bow'를 '서린'이 아니라 '땀'로 번역하거나, 'look deeply'를 각각 '멈추다' '깊이 바라보다'라고 번역한 경우는 불교용어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경우다. 그렇다고 지(止)와 관(觀)의 뜻을 깊게 풀어서 번역하기도 어려운 것이 문제다. 'six perfections'는 '여섯 가지의 극치'가 아니라 '육바라밀'로, 'perfect wisdom'은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 '반야의 지혜'로 번역해야 더 정확하다. 'work'를 '수행'이 아니라 '일하다'로, 'bow' (합우)를 '대접'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단어의 뜻이 틀리게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과 맞지 않게 번역된 경우도 있다. 'touch'는 '마음으로 접하고 하나가 되는 것'도 의미하는데 소설 <붓다>처럼 이를 단순히 '물리적 접촉'만으로 번역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부적절한 번역이 되기도 한다.

이밖에 경전의 이름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거나 단어와 문장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경우,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고어를 사용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원문의 입부를 생략한 경우, 도시나 사람 이름을 잘못 표기된 경우도 많았다.

"각분야 연구성과 체계적 결집

불교문화학 정립단계에 도달

한국불교문화학회 창립

한국불교문화학회(회장 사재동 총남대 명예교수)가 창립회 5월 25일 첫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불교문화학회는 불교서지, 불교음악, 불교미술, 불교연극 등 불교문화와 관련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연구를 '불교문화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적 개념 아래 종합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민

속 등 불교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으로 '불교문화학의 방향과 방법론'을 발표한 사재동 교수는 "그 동안 불교문화가 각계 분야에서는 광범한 성장을 내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학제간 교류가 이뤄지지 못해 각각의 유관 분야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제 불교문화 각 분야의 연구 업적과 전공자들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집결시키는 '불교문화학'이 정립될 단

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예컨대 '월인석보'에 대한 연구만 보더라도 서지학, 문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연구가 가능하지만 서지학은 서지학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각각의 분야에서 연구하다 보니 종합적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 교수는 "불교문화와 관련된 각 분야의 학자들이 한 학회에서 만나 상호 연구 성과를 교류함으로써 학제간 연구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불교문화학의 방향과 방

법문에 입각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학회에는 이화여대 이남덕 명예교수(불교언어), 한성대 강순애 교수(불교서지), 동국대 문명대 교수(불교미술), 일본 히로시마대 윤광봉 교수(불교연극)를 비롯해 불교민속학, 불교무용학, 불교문학, 불교의례학 등 9개 분야의 학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분기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불교문화연구>라는 학회지를 일년에 두 번씩 펴낼 예정이다.

한편 '불교문화학의 학제간 만남'을 주제로 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사재동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불교와 문학', '불교와 서지(한국 불교서지학을 중심으로)', '한국불상의 도상 특징', '일본의 불교음악', '불교민속학의 방향과 전망' 등 5개 분야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스리랑카에서의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의 운명을 건 대논쟁!

과연 스리랑카는 불교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파이나두라 대논쟁

130여년전 스리랑카의 작은 마을 '파이나두라'에서 일만여명의 청중을 앞에 놓고 벌인 논쟁의 실제 기록. 제국주의 영국의 불교에 대한 유무형의 엄청난 탄압과 기독교에 대한 지원,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한 스님과 기독교를 대표한 목사와의 치열한 교리 논쟁. 시공을 뛰어넘는 현실성과 생동감, 그리고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드러나는 허와 실. 과연 논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승리의 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석오진 편저/사륙판 양장/250쪽/8,5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송판부) 926-8361, 팩스 926-8362

한글자 한글자 직접 써서 정성이 들어간 붓글씨 사경 사경은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경전의 뜻풀이는 물론, 한자(漢字)의 매 글자마다 뜻과 음을 새기고, 특히 그 획순을 풀어놓아 올바르게 한자를 따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오랫동안 붓글씨로 불경을 써온 윤석우 선생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

금강경 사경 사륙배판 150쪽 5,000원
반야심경 사경 사륙배판 80쪽 3,000원
부모은중경 사경 사륙배판 56쪽 2,300원
천수경 사경 사륙배판 128쪽 4,5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송판부) 926-8361, 팩스 926-8362